

“어느 순교 가정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

마드리드 대교구 후안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까미노 주교님을 모시고 출간 기념식

지난 주 6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살바도르 다빗 신부(Salvador David)의 저서 "어느 순교 가정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 마리아 데레사와 그의 네 자녀들 (Unknown Letters from a Martyred Family: Maria Teresa and Her Daughters)" 출간 기념식이 마드리드 코디스 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저자는 권두언을 쓰신 마드리드 대교구 후안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카미노 (Juan Antonio Martínez Camino)보좌 주교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저자는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교님은 저자 신부님에게 서한 중 일부를 낭독해 줄 것을 자연스럽게 요청했고, 저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한 대목을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주교님은 살바도르 다빗 사제가 이 작품의 서문을 부탁했던 때를 언급하며, 20세기 스페인 순교자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친교의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 기념식장에서 마르티네스 카미노 주교님은 아르메니아 대량 학살, 나치의 포로수용소, 볼셰비키 박해,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도자와 평신도의 시복 절차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평신도의 경우,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 신앙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한층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복자들에 대한 풍부한 메모리 안에서 사료史料를 들어 인용하며, 특히 스페인에서 지난 세기의 성덕과 순교에 대한 증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전체주의 이념은 20세기에 수많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20세기는 "그 어떤 세기와도 비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세기"였던 것입니다.

인권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죽음에 대한 역사적 이유에 직면하여, 살바도르 다빛 신부님은 20세기에 이르러 왜 그토록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기 동안 치러 낸 거대한 불의와 희생 이후..... 과연 용서는 가능할까요? 순교자들은 용서하며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신학적 사명이었습니다. 20세기 이후, 용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에게 예언적 가치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용서는 연약함의 표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알헤메시(Algemesí)의 순교자들은 20세기 그 세기 동안 자비심 없는 인류에게 용서와 자비를 증거한 순교자 혈통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피 흘림으로써 인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살바도르 다빛 신부님은 결론지었습니다.

20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순교의 영성입니다. "어느 순교 가정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라는 이 책의 공헌은 20세기 순교라는 맥락에서 보면 작지만, 순교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고 크나 큰 가치를 지닙니다.